

“고등학교서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기술인재 양성”

광주 4개 직업계고 재학생 113명 ‘과정평가형’ 합격

7개 과정 평균합격을 73.4%…학교별 실무교육 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광주지역 4개 직업계고 학생 154명이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7개 과정에 응시해 11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 평균 합격률은 73.4%다.

이번 성과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쌓은 이론과 실무 역량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자동차설비마이스터고는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에서 40명 중 33명이 합격해 82.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기설비 시공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평가하

는 자격이다.

전자산업기사와 자동화설비산업기사 등 3개 과정에서 70명이 응시해 62명이 합격, 88.6%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광주공고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발전설비과 학생 15명은 전남·광주지역 직업계고 가운데 처음으로 설비보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SI반도체과에서는 전자산업기사에 17명이 응시해 15명이 합격했다. 이에 따라 2개 과정에서 32명 중 30명이 합격해 93.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광주공고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교 개편과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현장과 연



광주공고 SI반도체학과 학생들이 교실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한 직업교육을 강화해왔다.

광주전자공고에서는 수질환경산업기사과정에서 16명이 합격했으며, 동일미래과학고에서는 자동화

설비산업기사 과정에서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교육부 ‘자격특화 특성화고’ 사업에 적

극 참여할 계획이다. 산업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 자격 취득과 연계한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실습환경 개선, 교원 전문성 강화, 기업 연계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 계획에 대응해 반도체 분야 학교 재구조화와 전남광주형 글로벌 마이스터고 확대도 추진한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성장·정주하는 ‘교육-지산지소’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형지영 진로진학과정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학생들의 열정과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해 힘쓰는 교사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며 “산업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이 좋은 일자리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직업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최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2층 갤러리에서 열린 사진전 ‘중구난방’ 오픈식 모습.

“일상·문화재·대자연, 사진가 손에서 예술 서사로”

사진가 7명 ‘중구난방’전, 7일까지 금남로본관 2층 갤러리서

“사진을 취미로 하는 동호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록성과 예술성을 조화롭게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과 문화재, 대자연이 작가들의 손을 거쳐 어떻게 예술적 서사로 재탄생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박종호 사진작가는 최근 전남광주지역 사진가 7명이 함께 지난 1일 개막, 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2층 갤러리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단체전 ‘중구난방’(衆口難防)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전시는 지난해 첫 전시에 이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중견 사진가 김경애·김병철·문요한·박종호·신영교·신종현·최영태 작가가 각자의 렌즈로 포착한 일상과 자연, 문화유산의 장면을 한데 모았다.

전시명 ‘중구난방’에는 서로 다른 시선과 개성을 지닌 작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

고 표현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본 대로 보고, 느낀 대로 담아내는 사진가들의 다양한 시선이 한 공간에서 만난다.

전시에서는 자연과 인공, 일상과 기록, 풍경과 사유가 교차하는 다양한 사진 작업을 만날 수 있다.

참여 작가들은 지난 2024년 ‘월요포럼’을 결성한 뒤 격주로 모여 사진의 본질과 표현 방식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디지털 작업의 편리함을 넘어 흑백사진이 지닌 깊이와 아날로그 감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 북구 신안동에 흑백현상실과 전용 확대기 등 작업 시설을 마련하고, 필름 현상부터 인화까지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사진의 물성과 색조를 탐구해 왔다. 작가들은 다양한 명도를 지닌 회색의 스펙트럼을 통해 무채색 사진이 지닌 깊이와 질감을 작품 안에 담아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시북구새마을회는 6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다솜동지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농촌집고쳐주기 대상 가구를 위해 사전 청소 및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쾌적한 보금자리 되길”…농촌 집수리에 힘 보탬

광주시북구새마을회, 장성 취약가구 청소·정리

광주시북구새마을회는 6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다솜동지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농촌집고쳐주기 대상 가구를 위해 사전 청소 및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향후 진행될 주택 개보수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마련된 것으로 북구새마을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탬다.

광주시북구새마을회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

한 주거복지 개선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전남 장성군 서삼면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도와준 덕분에 큰 위안을 느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주시북구새마을회는 “앞으로도 농촌 주택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로 이웃에게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용섭 (주)신호 대표, 신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기탁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효율 기여

지역사회 상생·사회적 책임 실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최근 (주)신호 이용섭 대표가 신안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상생하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기탁했다고 밝힌 이용섭 대표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일에도 앞장서 솔선수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설립된 (주)신호는 여수시에 본사를 두고 나주시에 공장을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태양광·태양열·풍력·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 성장에 힘쓰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장치, 수배전반, 교통신호 제어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이 대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



(주)신호 이용섭 대표 (사진 오른쪽)는 최근 신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청

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태고자 이뤄졌다.

이용섭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신안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신안군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아끼아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6 나주시민의 상’에 서정윤·김춘식씨 선정

시, 30일 제32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서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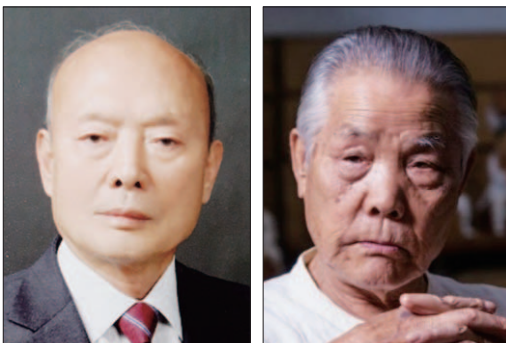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오랜 세월 지역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힘쓴 서정윤 전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장과 나주소반 복원·전승에 평생을 바친 김춘식 국가무형유산 소반장 보유자를 올해 ‘나주시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나주시민의 상은 지역개발, 충효도의, 사회복지, 교육문화, 산업경제 등 5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예우하는 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지역개발 부문 수상자인 서정윤씨는 공산면 의용소방대장과 공산면장, 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화재와 산불 진화는 물론 전기·전화 보급 기반 마련, 농로와 하천 정비, 수해 복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숙원사업을 추진했으며 공산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로와 하수도, 상가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이후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장 등을 맡아 경로당 환경 개선과 노인일자리,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교육문화 부문 수상자인 김춘식씨는 역사문화 도시 나주를 대표하는 전통공예인 나주소반의 복원과 전승에 평생을 헌신해온 장인이다. 40년간 국가무형유산 소반장 보유자로서 연구와 교육, 전시 활동을 이어오며 나주소반의 전통기법과 가치를 계승하고 나주 전통공예문화의 위상을 널리 알



서정윤씨

김춘식씨

리는데 기여했다. 또 전승이 단절됐던 나주부채와 황철의 복원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도 힘쓰며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되살리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제32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은 오는 10월 30일 오전 10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환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

켄텍, 배터리 내부 진단 ‘가상 기준전극’ 개발

김민호 교수 성과…추가 센서 없이 음극 전위 실시간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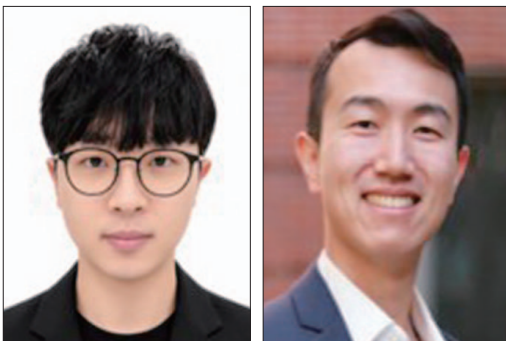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별도의 센서를 배터리 내부에 넣지 않고도 음극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급속충전 안전성과 배터리 수명을 높일 기반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켄텍은 에너지공학부 김민호 교수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유장 리 교수 연구팀과 함께 배터리 내부 음극 전위를 예측하는 ‘가상 기준전극’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은 셀 전압과 전류, 온도 등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배터리 상태를 판단한다. 그러나 내부

에서는 양극과 음극의 전위가 각각 달라져 전체 셀 전압만으로는 어느 전극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급속충전 과정에서 흑연 음극 표면에 급속 리튬이 쌓이는 ‘리튬 전착’은 성능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셀 전압만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리튬 전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정보인 음극 전위를 직접 측정하려면 양극과 음극 외에 별도의 기준전극을 삽입한 3전극 셀이 필요하다. 연구용 셀에서는 가능하지만 상용 배터리에 추가 전극을 넣으면 구조와 제조 공정이 복잡해져 적용이 쉽지 않



김민호 교수

유장 리 교수

다. 연구팀은 물리적인 기준전극을 데이터 기반 모델로 대체했다. 기준전극이 포함된 3전극 셀에서 실제 음극 전위 데이터를 확보해 모델을 학습시킨 뒤, 일반적인 2전극 셀에서 측정된 전압과 전류 등의 정보만으로 음극 전위를 실시간 예측하도록 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gwangnam.co.kr